

세월호 참사, 5·18...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들 없기를 기원합니다

국립 5·18묘지 뒤덮은 '노란 희망리본' 물결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항쟁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길 기원합니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5·18 및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신의 소감과 희망을 담은 500여개의 메시지를 민주묘지 주변 나무에 붙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걸린 '노란 희망리본'에는 민주·인권·평화와 안전한 한국사회 등을 바라는 추모객들의 희망과 염원이 빼곡히 담겨져 있다.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원들이 5·18 민주항쟁 제34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진행하는 행사로, 나무와 나무사이에 연결된 줄에 가로 50cm·세로 10cm 크기의 노란 희망리본이 줄줄이 매달려 있다.

12일 현재 500여명의 추모객들이 노란리본에 5·18 민주묘지를 둘러본 소감과 희망을 적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매달았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대는 다양해도 이들의 바람은 크게 다르지 않아

전국 500여 추모객들

민주·인권·평화와 함께

안전한 한국사회 염원하는

소감 등 적어 나무에 매달아

보였다.

'세월호 참사'와 '5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되며, 결국 이를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잊지 않고 이 세상에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Canada Kenney), '5·18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경상대 법학과 최성욱),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할지 모르겠다. 안전한 한국사회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정승현), '잊혀지지 않는 아픔의 역사, 겨레의 가슴에 남아주소서'(강은영·김예인) 등이다.

세월호 실종자들을 추모하는 글도 있었다.

'하늘에서는 못다한 꿈 펼쳐길...'(광주 최강), '꼭 살아서 가족의 품에 안길길 기원합니다'(김희성),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전남) 등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으로 지정되길 바라는 리본도 눈에 띄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으면 좋겠다'(함평 월아중 전교회장 장대원), '목청껏 불러라, 임을 위한 행진곡'(강기정 북구갑), '올해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장에서 제창으로 불러지길 기원합니다'(고성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광주 노훈진), '우리가 편히 지내는 것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이근산), '지금껏 5·18 민주항쟁을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박영우) 등 5월의 참 뜻을 알리려 고맙다는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 세월호 희생자 애도

'장미축제' 취소...공원만 개방

조선대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뜻에서 매년 개최했던 '장미 축제'를 취소하고, 장미공원만을 상설 개방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이날 23~24일 장미축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축제를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축제행사는 없지만 장미가 활짝 피기 시작한 장미공원은 외부에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 장미공원의 개화율은 40%이며 오는 20일을 전후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장미원을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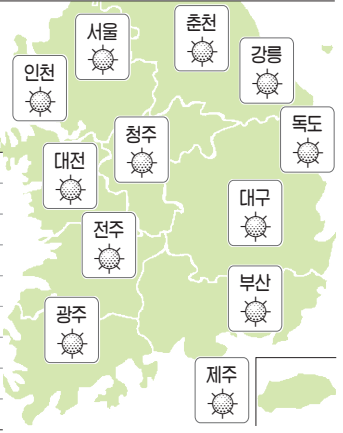
해돋이 05:30 해질 17:54
해짐 19:27 달짐 04:19

진도해상 '맑음'

일교차 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3/28	보성	맑음	10/28
목포	맑음	14/25	순천	맑음	13/29
여수	맑음	16/24	영광	맑음	12/27
나주	맑음	9/28	진도	맑음	10/26
완도	맑음	13/27	전주	맑음	13/29
구례	맑음	10/29	군산	맑음	13/26
강진	맑음	9/27	남원	맑음	10/28
해남	맑음	9/27	축산도	맑음	15/22
장성	맑음	9/27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1.0	남서~서	0.5
남해	남~남서	0.5~1.5	남~남서	0.5~1.0
남부	남~남서	0.5~1.0	남서~서	0.5~1.0
서부	남~남서	1.0~2.0	남동~남	0.5~1.5

◇생활지수

식중독	30
운동	6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56	06:22	13:02	18:30
여수	07:59	01:57	20:33	13:57

◇주간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	☀	☀	☀	☁	☀	☀
14/24	14/25	11/26	12/26	13/25	12/26	12/26



화물차-트레일러 추돌 1명 숨져

12일 오후 3시 화순군 이양면 쌍봉교차로 앞길(29호선·화순~보성 구간)에서 24t 트레일러(운전자 광모씨·44)가 앞서 가던 12t 화물차(운전자 심모씨·54)를 추돌해 광모씨가 숨지고 심씨가 중상을 입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교통비 없는 지적장애인에 이럴 수가

광주 은 K씨, 양림파출소 찾아가 사정 얘기하자 남구청 인계

구청→재활시설→노숙인 자활시설... 서로 떠넘기기만

한 지적 장애인이 광주에 온 뒤 교통비가 떨어져 해당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구청이 이 장애인을 노숙인·심신장애 등 재활시설로 인계해 적절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장애인은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을 통해 노숙인 및 심신장애 재활시설을 거쳐 또 다른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임시 보호 중이다. 하지만, 이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가거나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12일 남구 등에 따르면 K(25·지적장애 3급)씨는 11일 밤 8시20분께 광주남부경찰 양림파출소를 찾았다.

서울에 갈 KTX 비용을 벌리기 위해서였다. 당시 K씨의 수중금 1200원이 전부였다. 경찰관들은 긴급복지 예산 중 귀환여비가 있다는 사실을 K씨에게 전한 뒤 남구 당직실을 찾아가었다.

현재 각 구청은 귀환여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K씨를 인계받은 남구 당직자는 K씨에게 귀환여비를 주지 않고 H노숙인 재활시설로 넘겼다.

해당 구가 K씨를 노숙인 재활시설에 인계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이, K씨는 또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신호무시 순찰차, 어린이집 승합차 들이받아

원생·경찰관 등 9명 부상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하다가 원생 6명을 태우고 가던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학강교 사거리에서 히딩크관광호텔 방향으로 직진하던 광주동부경찰 금남지구대 소속 순찰차(운전자 이모 경사·46)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A어린이집 소속 승합차(운전자 공모씨·72)의 조수

석을 들이받았다. 순찰차엔 이 경사를 포함한 중국인 관광객 1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합차에는 운전기사 공씨와 인솔교사 1명·원생 6명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승합차 운전자 공씨와 인솔교사·원생 등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 경사도 목을 다쳐 광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목포(삼화) 274-5987
 서구 352-7788 목포(건영) 243-7463
 남구 676-7719 순천 744-8605
 북구 512-7998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공인가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빌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정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